**성령께서 그리스도를 계시하시는 이유 /프랜시스 프랜지팬**

****

†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계시하시는 이유

눅0508.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그가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리니라, 말하되,

나로부터 떠나소서, 오 주여, 이는 나는 죄 있는(하마르톨로스: 죄 있는, 죄인, 죄를 범한,

범죄자) 사람임이라.

우리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다고 이야기는 하면서도,

실제로 속으로는

"그러나 너무 가까이는 말고, 너무 자주도 말고"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살아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가까이 오시면

사람은 자신의 죄성에 압도되고 맙니다.

그분의 깨끗하심 앞에 서면,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외치지 않을 수 없는 어떤 것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죄성에 압도되고서도

우리의 사악한 죄의 본성은

재빨리 우리가 새롭게 깨달은 지식을 뽐내는 자리로 갑니다!(고전 8:1, 고후 12:7)

고전0801. 이번에는 우상들에게 바쳐진 것들에 관해서라, 우리 모두는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아느니라, 지식은 부풀어 오르나 사랑은 세우느니라(충전시키느니라)

고후1207. 그리고 풍성한 계시들을 통해 내가 도를 넘어 고양되지 않도록, 육신 안에서

가시가 내게 주어졌으니 곧, 나를 주먹으로 치는 사탄의 사자(使者)라,

이는 내가 도를 넘어 고양되지 않을까 함이라.

진리를 얼핏 보자마자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지금 알게 된 것을 자랑합니다.

마치 어떤 진리를 아는 것이

그 진리를 행하는 것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거룩에 대해 이야기할 때 흔히 그와 같은 반응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자아를 우쭐하게 만들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계시해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바라보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면 볼수록,

우리 마음에 투영이 되어

바울의 말처럼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갑니다(고후 3:18).

고후0318. 그러나 맨 얼굴로 거울에서와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는,

주(主)의 영(靈)에 의하는 것과 똑같이, 영광으로부터 영광에로 같은 형상 속으로

변형되느니라,

(프랜시스 프랜지팬이 지은         “거룩과 진리와 하나님의 임재” 중에서...)